

'입담퀸' 미주 '진행돌' 승희 '흥부자' 주이

(러블리즈)

(오마이걸)

(모모랜드)

미주, 19금 입담에 친화력도 짱 승희, 차분한 말 솜씨·진행도 굿 주이, 흥 폭발 댄스에 '다재다능'



걸그룹 러블리즈 미주, 오마이걸 승희, 모모랜드 주이(왼쪽부터)가 '예능돌'로 방송가를 활발하게 누르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방송가에서 '예능돌(예능프로그램으로 돋보이는 아이돌)'로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한 걸그룹 멤버들이 있다. 러블리즈의 미주, 오마이걸의 승희, 모모랜드의 주이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위 모습과는 달리 예능프로그램에서 망가지는 모습도 불사하며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저마다 뚜렷한 개성과 매력을 드러낸 덕분에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으로부터 '러브콜'도 잇달아 받고 있다.

●러블리즈 미주...과감한 입담이 포인트!

강력한 무기는 어디로 뺏지 모르는 입담이다. 최근 시즌1을 마친 tvN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에서 힘을 확인시켰다. 아이돌 멤버에게서는 보기 힘든 '19금 입담'까지 펼쳐 진행자 유재석을 '넌다운'시켰다. 특유의 친화력도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에 힘을 더한다. '식스센스'의 만안닌인 연기자 오나라와 20살의 나이차에도 금세 친해질 정도다. 촬영장 막내이자 '분위기 메이커'로

도 제대로 활약했다.

최근 tvN '놀라운 토요일', JTBC '아는행님' 등에서도 전문 방송인 못지않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베테랑 신동엽과 박나래로부터 "우리 쪽 후배를 보는 것 같다"는 극찬(?)을 듣기도 했다.

●오마이걸 승희...차분한 진행 실력도 눈길

씩씩하고 귀여운 매력을 내세운다. 너스레 가득한 말투는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한 흡소핑 채널의 콘텐트 촬영 도중 "20년 경력"이라는 제빵사에게 "그럼 6살 때부터 하신 거네요?"라고 농을 치

는 장면이 특히 화제가 됐다. 각종 SNS에 '사회생활의 정석'이란 제목으로 끊임없이 공유되면서 '호감형 스타'로 거듭났다.

차분한 진행 실력도 돋보인다. 방영 중인 KBS 2TV '축구야구말구'를 진행하며 야구스타 박찬호, 축구스타 이영표 사이에서 '프로그램의 중심을 잘 잡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발랄한 매력으로 두 출연자를 쥐락펴락하는 모습이 뜻밖의 매력을 안긴다.

●모모랜드 주이... '흥'의 대명사

최대 강점은 강력한 에너지다.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지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다른 출연자들이 "어떻게 지치지 않느냐"며 깜짝 놀랄 정도다. 어디서든 음악이 흘러나오면 무조건 춤부터 추고 보는 모습 때문에 '흥 부자' '흥 메이커' 등 별명을 얻었다.

뷰티프로그램부터 차분한 분위기의 인문학 토크쇼까지, 어떤 소재의 프로그램에도 잘 어울리는 소화력도 지녔다. 올해에만 tvN 교양프로그램 '김창욱쇼', 라이프타임 '뷰티타임 시즌2'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최근에는 무대에서 '흥'을 폭발시키고 있다. 17일 모모랜드의 세 번째 싱글 음반 '레디울'을 선보였다. 가수 싸이가 곡 작업에 참여해 화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BTS 정규 4집 '플래티넘 앨범' 인증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2월 선보인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L:7)로 18일(한국시간)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RIAA)로부터 '플래티넘 앨범' 인증을 받았다. 한국가수 최초로 1월 인증 받은 2018년 리메이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 이후 두 번째다. RIAA는 판매량 및 다운로드·스트리밍 횟수 등을 기준으로 디지털 싱글과 앨범에 골드(50만 이상), 플래티넘(100만 이상), 멀티 플래티넘(200만 이상), 다이아몬드(1000만 이상)를 인증한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 3곡의 디지털 싱글을 포함해 모두 5개의 플래티넘 인증을 갖게 됐다.

돌리 파튼, 코로나 백신개발 11억원 기부

팝스타 돌리 파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한국시간) 영국 BBC는 돌리 파튼이 올해 4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의 밴더빌트 대학병원에 11억원을 기부했고, 이 기금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에 쓰였다고 보도했다. 최근 모더나는 3상 임상 시험에서 자사의 백신 후보물질이 94.5% 이상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돌리 파튼은 1970~8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로 꼽히며 '9 to 5' 등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故 최진실 아들 최환희, 가수로 나선다

고 최진실의 아들 최환희가 가수로 데뷔한다. YG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 로빈이 이끄는 소속사 로스차일드 엔터테인먼트는 18일 "최환희가 활동명 '지플랫(Z flat)'으로 가수로 나선다"고 밝혔다. 최환희는 직접 작사, 작곡한 '디자이너'라는 곡을 20일 선보인다. 최환희는 걸그룹 출신 가수 혼담과 듀엣으로 노래를 완성했다. '지플랫'은 A~G로 이뤄진 음악코드에는 존재하지 않는 Z를 내세워 "세상에 없는 음악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소속사 측은 설명했다.

차인표, 코미디영화 '차인표' 내년 1월 공개

연기자 차인표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코미디 영화 '차인표'를 내년 1월1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공개한다. 영화 '차인표'는 차인표가 과거 전성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차인표와 함께 조달환이 참여한 영화는 신인 감독 김동규 감독이 연출했다. 1000만 영화 '극한직업'의 제작사 어바웃필름이 제작했다.

전여진 성폭력·불법촬영 정바비 검찰 송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성폭력 및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의 정바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체하던 20대 가수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관련 피해를 알리고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이 정바비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정바비는 11일 SNS에서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영화투자자 소지섭, 코로나19와 맞장



소지섭

12월 개봉하는 '썸머 85'에 투자 명장 프랑소와 오종 감독이 연출

연기자 소지섭이 영화 투자자로 나서 관객을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투자 작품의 12월 개봉을 확정하고 극장을 찾는 관객 발걸음을 기다린다.

소지섭은 12월 선보이는 프랑소와 오종 감독의 영화 '썸머 85'에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소속사 51k와 '공동제작' 형태다. 소지섭은 2008년 주연작 '영화는 영화다'를 시작으로 영화 투자자에도 나서왔다.

특히 해외 독립·예술영화 등 다양성영화에 큰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참여해왔다. 2019년 호평 받은 '글로리아를 위하여'를 비롯해 2018년 '해피 해피 레스토랑' 등이 그의 투자 목록에 올라 있다.

이번에 그가 참여한 '썸머 85'도 '8명의 여인들' '신의 은총으로' 등으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온 '명장' 프랑소와 오종 감독의 연출작이다. 1985년을 배경으로 사랑에 빠진 두 청춘의 이야기를 그려 올해 칸 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됐다.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선정돼

주목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작품의 명성에 기대 소지섭은 영화에 대한 애정과 좋은 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는 영화 수입배급사인 찬란과 손잡고 앞으로도 관련 투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섭은 이와 함께 내년 1월에는 신작 '자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윤진과 함께 살인사건에 얽힌 용의자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펼친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으면서 영화 투자자와 배우로서 행보가 바빠져 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프듀' 투표조작 피해자 12명 공개

재판부 "누군지 밝혀야 보상 가능" 안 PD 징역 2년·김 CP 1년 8개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전 시리즈에 걸친 시청자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출연자 12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시즌1의 김수현·서해린, 시즌2의 성현우·강동호, 시즌3의 이가은·한초원, 시즌4의 양자르디 디모데·김국현·이진우·구정모·이진혁·김동현이다. 그동안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명단이 소문으로만 나돌았지만 실제 공개된 건 처음이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스 101'의 연출자 안준영 PD와 김용범 총괄프로듀서(CP)의 항소심에서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며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데뷔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고, '국민프로듀서'로 자부심을 느끼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제작진을 질타했다.

하지만 제작진이 투표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한 연습생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은 순위 조작한 피고인들을 단죄하는 재판이지 오디션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믿고 최선을 다해 젊음을 불태운 연습생들을 단죄하는 재판이 아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안 PD 등에 의해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 역시 순위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들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700만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앞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 CP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전 시리즈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희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입수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엠넷은 "모든 피해 연습생들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화제의 '펜트하우스' 시즌2 만든다

20부작 시즌1 12월 말 막내려 시즌2 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논란만큼이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시즌2 준비에 돌입한다.

18일 방송가에 따르면 '펜트하우스' 제작진은 12월 초 시즌2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확한 편성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한다.

'펜트하우스' 제작진은 시즌1의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보고 시즌2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마는 상류층만 들어갈 수 있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헤라팰리스' 입주자들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불륜·학 교폭력 등 자극적인 소재로 시청자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시청률은 최근 14.5%(닐슨코리아)를 돌파했다.

인기 속에 총 20부작의 시즌1은 12월 말 막을 내린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늦어도 이달 24일 시즌1 촬영을 마치고 재정비에 나선다. 다만 시즌2 촬영 직전까지 관련 일정을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스포일러'에



SBS '펜트하우스'의 한 장면

대비가위 위해 전 연기자와 스태프에게 작품에 대한 함구명도 내렸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매회 반전이 드라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시즌2 방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도 하다.

한 방송 관계자는 "제작진이 시즌드라마 제작 여부조차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연기자들은 시즌2 출연 여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즌2 출연자 정보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출연자의 소속사 관계자는 "답답하긴 하지만, 드라마 특성상 관련 사항을 쉽사리 알려주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